

세 차 계 나 래 치 는 비 약 의 불 바 람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강산에 희망찬 새해 2014년의 진군의 발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밝아온 새해는 어떤 해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밝혀주시었다.

선군조선의 번영기,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며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깃들여 있다.



역사적인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력중산의 불길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이번엔 또 어떤 양상일가 하는 호기심이 버릇처럼 굳어져가고 있다.

한것은 최근 이 땅에 일떠서는 건축물들마다 종전과 달리 너무도 새롭고 특색있어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듯 한 생각을 갖게 하기때문이다.

얼마전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았을 때에도 나는 그곳에 꾸러진 건축물들의 독특함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건물외벽에 통나무장식을 하고 야외관람석과 천막휴식장의 의자, 승마대와 방향표식판도 나무를 가지고 제작설치하여 현대미가 나면서 자연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자연과 친숙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이자기들의 꿈과 이상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승리의 신심2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새해벽두부터 자기 맡은 부문에서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

더 높은 비료생산으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려는 흥남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비날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 과학기술분야의 날개를 활짝 퍼

고 높은 과학기술성파를 내놓기 위하여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는 과학자들.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해가고 있다.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있는 소식이 전해지고있는가 하면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불고있는 과학기술열풍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올해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 전초기지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갈 열의에 불타있는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룩

색건축, 생태건축, 지능건축과 수도도시건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몰지의프로그래밍,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리완성 등 방대한 목표들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나 섰다.

수산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려갈 열의에 불타있다. 벌써 동해바다에 탐색선들이 떠서 고기떼의 분포와 이동상태를 탐색하고있으며 위성정보에 의한 중심어장탐색프로그램이 완성단계에 있다.

그 어디서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평양을 방문한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땅 그 어디를 가보아도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령도자를 잘 받들어 기어이 자기들의 힘으로 국력이 강하고 잘사는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조국인민들의 의지는 참으로 비상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와 더불어 장엄한 투쟁의 해인 올해에 반드시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

* 농업성 국장 주철규와 나눈 이야기 *

기 자: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농업성일군들의 심정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주 철 규: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농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신년사의 첫번째 과업으로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는 문제를 지적하시였겠는가.

하기에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농업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지난해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생산하여 나라살뜰에 채우는데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자리에 농업부문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심장에 간직한 전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

을 찌를듯이 높다. 기 자: 올해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 아니겠는가.

주 철 규: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높은 단계로서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농촌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주체 53(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어 이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원칙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시어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올해 신년사에서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기 자: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있는 사업들은...

주 철 규: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또다시 주



타격방향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여기에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영농공정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며 다수확작물인 논벼와 강병이를 많이 심어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

를 획기적으로 높이는것, 이것이 올해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라고 생각 한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업기풍과 일본세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농업생산지도를 높은 방법론을 가지고 참신하게 해나가겠다.

다수확작종의 종자를 도입하고 우리 식의 유기농법과 과학적인 재배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등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대담하게 펼쳐나가겠다. 농업생산중대를 위해 질 좋은 유기질비료생산을 높이고 간석지와 같은 저수확지의 재배기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에 영농기술과 방법을 혁신하여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나감에 농사에서 적은 원가를 들이고 실리를 따져가며 일하는 등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리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진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답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대학안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새해 진군길의 앞장에서 나아갈 열의가 불타고 있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리상과 포구가 더욱 커지고 신심이 넘쳐난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날의 벽한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학안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년대를 펼쳐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 대학안에 나서는 과일은 참으로 방대하다.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룩색건축, 생태건축, 지능건축과 수도도시건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몰지의프로그래밍,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리론을 비롯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앞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설계교육을 정보화, 현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며 건축설계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더 많이 개척해나가겠다. 특히 교원들과 학생들이 건축물설계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겠다.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고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켜 실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림 건 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남조선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9일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였다.

통지문은 새해를 맞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온 겨레와 내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다고 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게 하여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취지로부터 새해를 계기로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으며 그 실천적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상반되게 새해벽두부터 언론들과 전문가들, 당나들을까지 나서서 무리한 언동을 하였을뿐이라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연습을 벌린데 대하여 지적

하였다.

더우기 신년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를 결코되고 우리 내부문제까지 왈가왈부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제기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내들며 동문서답하였다고 하면서 종래의 대결적자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것이 없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설을 계기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가 진정으로 분렬의 아픔을 덜어주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한것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하였다.

원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지난해 우리에게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하였다.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작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할수 있겠는가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고 보면 시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앞으로도 우리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을 외면하고 력사의곡을 강행하는가 하면 교통망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찰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억누르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교인들도 시국미사를

남조선의 카톨릭교 수원교구의 교인들이 6일 경기도 화성에서 불법부정선거를 저지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시국미사를 가졌다.

시국미사에서 발언자들은 2012년 선거에 정보원과 군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전면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총복》딱지를 붙이



새해의 시작과 함께 온 민족은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지 한해가 지났지만 북남관계의 파국적인 위기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은 모두에게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그를 위한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 북남관계가 진실로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자면 서로 비방증상하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들이 없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방증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북남관계를 해치는 불씨이며 군사적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다.

민주로총 결의집회 진행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로조원들과 시민들 1 300여명이 4일 서울광장에서 로동운동란양분쇄, 민영화되지, 헌집권자퇴진을 위한 결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민주로총본부에 강제로 침입하여 란동을 부린것은 류례없는 폭력이자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였다.

로동자를 적으로 삼는 현 《정권》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이에 상반되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험담들이 더욱 우심하게 튀어나오고 《용정》이니, 《격멸》이니 하는 대결광판속에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쏘아대어 총포탄으로 하여 화약내가 질게 풍기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지어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선의에 대해 《진정성》이니, 《량면

전술》이니 뭐니 하며 합부러 모독하는 험담들까지 쏟아져나오고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은 지난 시기 공화국의 선의의 조치들을 뿌리치고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공공연히 질주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갔던 이전 《정권》의 전철을 여전히 답습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집권 1년을 동족대결로 일관하여 북남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운 남조선당국이 새해 정초부터 계속 대결적자세를 보이고 호전적행동들을

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성의있는 자제가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고대하는 온 민족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

북과 남이 서로를 혈투으며 끝없는 대결과 논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고 그러한 소모적인 싸움에 민족의 재부가 헛되이 낭비되는것도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이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것처럼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될수 없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은 이전 《정권》의 집권 5년과 지난 1년이 너무도 충분히 립증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이제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빨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평화변영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결자세를 버리고 성근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